

대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 방안 연구*

지연정** · 문명현*** · 박지호**** · 김병주*****

I 알기 쉬운 개요

매년 실시하는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성장 후 더 쉽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대학생의 학교폭력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전국지역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을 초중고 학교폭력 경험과 비교했을 때 대학생이 되어도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로 도출된 4가지의 차원이 단편적이고 배타적으로 구분되기보다 서로 상보적, 유기적으로 교차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생들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대학은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한 고등교육을 구현시키기 위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 * 본 연구는 2019년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 지원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NRF-2019S1A5B5A07093779).
- ** 영남대학교 학교교육연구소 연구원, jiyj92@hanmail.net
- ***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mmhp@naver.com
- **** 경희대학교 스포츠지도학부 학생, wlgh0994@khu.ac.kr
- *****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kimbj@yu.ac.kr

투 고 일 / 2023. 1. 2.
 심 사 일 / 2023. 4. 11.
 심사완료일 / 2023. 5. 11.

I 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토대로 향후 예방대책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7개월간에 걸쳐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브리타임)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 467부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양적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 6명과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방안에 관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467명 중 대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은 목격경험 28.9%, 피해경험 8.6%, 가해경험 0%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과 개선방안으로는 교육차원, 사회인식차원, 권력구조차원, 개인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대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대책, 질적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

I. 서 론

지난 수년간 초중등학교의 학교폭력 대책은 매우 중요시되고 대학 진학 전까지 해마다 실태 조사 및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각 기관들이 가정폭력에서부터 학교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수의 사회기관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폭력이 만연한 사회전반에 걸쳐있고 세대 간의 전이로 인해 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는 대학생의 학교폭력사건 발생 가능성도 그리 낮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대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연구는 절실히 보인다.

뉴스를 통해 보도된 대학생들의 폭력사건을 살펴보면, 그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게임을 조용히 하라는 말에 화가 나 룸메이트에게 흥기를 휘두른 대학생’(연합뉴스, 2018.4.5.), ‘교수가 대학생에 얼차려’(연합뉴스, 2018.5.29.), ‘부산에서 여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후 남자친구의 집까지 끌려가 감금과 폭행을 당해 눈·코뼈 골절된 사건’(동아일보, 2018.3.27.), ‘대나무숲에 드러난 대학가 젊은 끈대들: 술자리 강요에 선배 선물비 걷기는 기본, 단체기합에 성희롱까지’(주간동아, 2017.3.13.), ‘학폭’대응에서 외면 받는 대학생들: 서울의 한 대학교 체육관에서 선배가 신입생에게 ‘엎드려 뺨쳐’, ‘원산폭격’을 시키는 장면포착(뉴스투데이, 2021.3.15.) 등은 일부 언론에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대학의 선후배 관계가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관계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계속 재생산해 내고 있다(나윤경, 권인숙, 2010). 대학생의 충격적인 폭력현상은 선후배 간, 동료 간, 이성 간, 교수와 학생 간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대학생은 성인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와 대응에 관심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폭력과정을 학습하여 성장한 후 더 쉽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이화숙, 2016). 대학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은 지적 성장은 물론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폭력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결과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사건에 대한 예방교육은 물론 사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어떤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혁과 의식의 개선이 시작될 수 있는 발전적인 공간이기에 공적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숙고할 기회와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관련 연구는 대부분 데이트 폭력이 연구 되어 왔으며, 음주와 관련된 폭력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15%는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여성부, 2002), 대학생들은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조무용, 김정인, 2016), 대학생의 약 30%가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서경현, 2008). 또한 부모 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경험(김동기, 2009), 가정폭력 직접·간접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김재엽, 이효정, 송아영, 2007; 문지혜, 정혜정, 2015; 이화숙, 2016), 학교폭력 피해경험(Schnurr & Lohman, 2008), 학교폭력 가해경험(박선숙, 2016)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피해실태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 527명 중 347명(66%)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홍태경, 2019). 이는 초중고 시절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피해·가해학생은 갈등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이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으로 확대되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대학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생은 신입생 시절부터 입학전의 입시준비에 의한 긴장으로부터의 해방 차원에서 자칫 무절제한 음주습관에 젖어들기 쉬우며, 고학년이 되어갈수록 동기, 선후배, 이성 친구들과 과의 인간관계를 위한 음주기회가 증대되어간다(김맹진, 2009). 조성기 등(2001)은 학과나 동아리 행사와 같은 사교적인 목적이 음주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음주는 친구와의 다툼, 사고, 재정 손실, 결석, 예기치 않은 성행위, 자살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25배나 높다(Ulman, Karabatsos, & Koss, 1999). 대학생들의 음주 및 주취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양광식, 2014)에서는 대학생이 사교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과정에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7.2%이며 이중 6.5%가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였다. 송지영(2008)은 음주로 인한 문제 및 장애를 갖고 있는 대학생 비율이 설문대상자의 71.3%라고 밝혔으며,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귀덕, 2008)에서는 97%의 응답자가 건강상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음주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윤경과 권인숙(2010)은 대만과 비교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도한 음주인데, 이는 복학생의 존재, 집단문화, 서열적 인간관계 등과 교차하면서 한국 대학의 비민주성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음주가 폭력사건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사건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에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및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에서 전국의 대학생 1,00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학캠퍼스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가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폭력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갖지만, 범죄피해에 국한된 자료를 조사하였고, 폭력에 관한 원인과 폭력사건 후 대학과 학생간의 사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한 점, 최근의 연구물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대학생의 학교폭력과 관련 연구물은, 현재의 대학생 간 학교폭력에 대한 주제보다는 과거 청소년기 동안 겪었던 학교폭력 경험이 현재 대학생에게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고경은, 2016; 이응택, 2016; 임정란, 2019).

대학생의 대학캠퍼스 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왕따, 살인사건, 강간, 데이터 폭력,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등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대학생들의 폭력문제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비폭력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대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학교폭력 문제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한 개선방안연구는 필요하다.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학교폭력개념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폭력사건(학생 간, 졸업생 간, 교직원 간 등)을 포함하며, 학교내외,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폭력사건을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향후 예방대책 논의를 위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 그리고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폭력을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목격자 및 피해자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에서의 학교폭력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모두 표집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성별, 학년, 전공, 소재지 등의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7개월간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브리타임)질문지를 배부하여 총 470명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470부의 자료 중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3부를 제외한 46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2~4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각각 3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선정은 학교폭력 경험과 예방개선을 위한 관심, 문제점 인식, 전달능력이 있는 선정기준을 대학 내 상담센터, 교·강사,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추천을 통해 모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학년	1학년		177	37.9	성별	남	270	57.8	
	2학년		149	31.9		여	197	42.2	
	3학년		79	16.9	대학 소재지	수도권	221	47.3	
	4학년 이상		62	13.3		비수도권	246	52.7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198	42.4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321	68.7	
	자연·공학·의학		177	37.9		비동거	146	31.3	
	예체능		92	19.7	합 계		467	100.0	

표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구분	가명	성별/학년	대학소재지(원지역)	전공계열	학교폭력경험유무	휴학유무	구분	가명	성별/학년	대학소재지(원지역)	전공계열	학교폭력경험유무	휴학유무
1	민우	남/2	수도권(비수도권)	예체능계	유	군필(무)	4	가영	여/3	수도권(비수도권)	공학계열	무	무
2	지수	여/2	수도권(수도권)	인문계열	유	유·1년	5	성진	남/4	수도권(수도권)	교육계열	유	군필(무)
3	정훈	남/3	수도권(수도권)	자연계열	무	군필(유)	6	태우	남/4	수도권(수도권)	사회계열	무	군필(무)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국단위로 초4~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수정·보완사항은 대학 내 식당, 커피숍, 기숙사 등 건물의 세부적인 장소와 학교축제,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활동, MT 등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추가하였다. 또한 피·가해·목격상황에서 음주여부를 포함하여 대학생들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다. 해당 설문지는 학교폭력관련 상담 및 강의 경력이 있는 박사급 이상 전문가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문항 구성은 표 3과 같다.

설문조사 이후 자료수집은 포커스그룹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전 면접조사와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7월에서 9월까지 5회에 걸쳐 1시간정도 카카오톡 카톡창과 Zoom(줌)을 이용하여 반구조화와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직·간접적인 학교폭력 경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여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해결방안을 위한 핵심질문은 대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대학과 대학생,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에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여 토론과정을 수집하였다. 학교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3회기는 별도로 진행하였고 2회기는 전체 참여자와 종합적인 논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표 3
학교폭력 경험 실태조사 문항 구성

설문내용	세부항목	
배경변인	일반적 특성	성별, 대학 소재지, 학년, 전공계열, 부모와 동거여부
	일상활동	음주빈도
	학교폭력 관련 경험	교육경험, 목격경험, 피해경험
학교폭력 목격경험	목격상황	목격유형, 목격장소
	목격시기	시간, 요일, 학기, 시점
	폭력 당사자	피해자·가해자 인지 여부
	목격 신고	신고 여부, 향후 대처 행동
학교폭력 피해경험	피해 상황	피해유형, 피해원인, 피해장소, 피해당시 주변인, 피해정도
	피해 시기	시간, 요일, 학기, 시점
	폭력 당사자	가해자 인지 여부, 가해자 수
	피해 신고	미신고 사유, 처벌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응답결과에 대한 빈도, 백분율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여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학교폭력의 경우 폭력 시기·장소·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므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폭력 경험 여부와 같은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중응답에 대한 배경변인과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통계적 엄격성을 위해, 응답결과 중 하나의 번호로 일괄적으로 체크하거나,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 설문을 제외하여, 설문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질적연구의 자료분석은 Wemer, Schoepfle(1987)의 원인연쇄 분석법(casual chai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연결하는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폭력(결과) →교육부재(원인)→실천교육(어떻게),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한 현상을 연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일지에 대한 개념들을 범주화하면서 통합하는 과정을 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공동연구자와 분석과 해석의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하면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학교폭력 목격 경험

대학생의 학교폭력 목격 경험 여부를 보면, 연구대상 467명 중 28.9%인 135명이 학교폭력에 대한 목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미경험자에 비교하여 학교폭력 목격 경험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학생이 수도권 학생보다 학교폭력 목격 경험의 비율이 높았으며, 음주의 빈도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목격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폭력 경험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구분	폭력 미경험		폭력 목격 경험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67	53.4	89	65.9
	여	146	46.6	46	34.1
대학 소재지	수도권	172	55.0	43	31.9
	비수도권	141	45.0	92	68.1
학년	1학년	132	42.2	38	28.1
	2학년	99	31.6	44	32.6
	3학년	42	3.4	35	25.9
	4학년 이상	40	12.8	18	13.3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133	42.5	60	44.4
	자연·공학·의학	118	37.7	50	37.0
	예체능	62	19.8	25	18.5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221	70.6	87	64.4
	비동거	92	29.4	48	35.6
음주 빈도 (1년 평균)	일주일 한번 이상	64	20.4	40	34.8
	한달에 한번	110	29.1	50	37.0
	2~3달에 한번	110	35.1	31	23.0
	비음주	48	15.3	7	5.2
폭력예방교육 경험	매년 1회 이상	84	26.8	31	23.0
	없음	229	73.2	104	77.0
합 계		313	100.0	135	100.0

* 학교폭력의 피해만 경험한 연구대상은 제외되어 본 표의 총인원은 448명으로 제시되었음

1) 목격 상황

대학생의 학교폭력 목격 유형의 경우 언어폭력이 68.9%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이며, 성추행·성폭력(32.6%), 신체폭력(17.0%), 강제 심부름(16.3%),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11.9%), 기타(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언어폭력과 성추행·성폭력이 높은 비율을 보이나,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의 경우 언어폭력 다음으로 강제심부름의 비율이 높았다.

표 5
학교폭력 목격 유형(복수응답)

목격 유형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강제 심부름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성추행 성폭력	기타
		N(%)	N(%)	N(%)	N(%)	N(%)	N(%)	N(%)
성별	남	18(20.2)	88(99.9)	18(20.2)	5(5.6)	9(10.1)	22(24.7)	4(4.5)
	여	5(10.9)	35(76.1)	4(8.7)	11(23.9)	7(15.2)	22(47.8)	7(15.2)
대학 소재지	수도권	11(25.6)	37(86.0)	10(23.3)	6(14.0)	4(9.3)	16(37.2)	3(7.0)
	비수도권	12(13.0)	56(60.9)	12(13.0)	10(10.9)	12(13.0)	28(30.4)	8(8.7)
학년	1학년	2(5.3)	26(68.4)	10(26.3)	4(10.5)	2(5.3)	6(15.8)	1(2.6)
	2학년	7(15.9)	31(70.5)	7(15.9)	3(6.8)	8(18.2)	9(20.5)	2(4.5)
	3학년	6(17.1)	3(65.7)	3(8.6)	3(8.6)	3(8.6)	16(45.7)	4(11.4)
	4학년 이상	8(44.4)	13(72.2)	2(11.1)	6(33.3)	3(16.7)	13(72.2)	4(22.2)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10(16.7)	44(73.3)	4(6.7)	7(11.7)	11(18.3)	21(35.0)	10(16.7)
	자연공학의학	7(14.0)	31(62.0)	10(20.0)	8(16.0)	4(8.0)	15(30.0)	-
	예체능	6(24.0)	18(72.0)	8(32.0)	1(4.0)	1(4.0)	8(32.0)	1(4.0)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10(11.5)	54(62.1)	8(9.2)	11(12.6)	10(11.5)	25(28.7)	8(9.2)
	비동거	13(27.1)	39(81.3)	14(29.2)	5(10.4)	6(12.5)	19(39.6)	3(6.3)
음주 빈도 (1년 평균)	주 한번 이상	5(10.6)	31(66.0)	11(23.4)	7(14.9)	4(8.5)	16(34.0)	4(8.5)
	한달에 한번	11(22.0)	38(76.0)	9(18.0)	4(8.0)	7(14.0)	13(26.0)	5(10.0)
	2~3달에 한번	6(19.4)	20(64.5)	2(6.5)	3(9.7)	4(12.9)	13(41.9)	2(6.5)
	비음주	1(14.3)	4(57.1)	-	2(28.6)	1(14.3)	2(28.6)	-
폭력예방교육 경험	연 1회 이상	6(19.4)	22(71.0)	5(16.1)	3(9.7)	6(19.4)	17(54.8)	5(16.1)
	없음	17(16.3)	71(68.3)	17(16.3)	13(12.5)	10(9.6)	27(26.0)	6(5.8)
케이스 전체		23(17.0)	93(68.9)	22(16.3)	16(11.9)	16(11.9)	44(32.6)	11(8.1)

대학생의 학교폭력 목격 장소의 경우 강의실이 78.4%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강의실 외 교내시설(46.4%), 교내 건물밖(3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4학년 이상, 인문·사회·교육계열의 경우 교내 건물 밖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교폭력 목격 장소(복수응답)

목격 장소		강의실	강의실 외 교내시설	교내 건물밖	온라인	교외주변
		N(%)	N(%)	N(%)	N(%)	N(%)
성별	남	50(76.9)	31(47.7)	18(27.7)	4(6.2)	1(1.5)
	여	26(81.3)	14(43.8)	16(50.0)	5(15.6)	3(9.4)
대학 소재지	수도권	30(76.9)	20(51.3)	15(38.5)	3(7.7)	2(5.1)
	비수도권	46(79.3)	25(43.1)	19(32.8)	6(10.3)	2(3.4)
학년	1학년	21(80.8)	13(50.0)	5(19.2)	3(11.5)	-
	2학년	28(84.8)	12(36.4)	12(36.4)	3(9.1)	-
	3학년	19(82.6)	9(39.1)	8(34.8)	1(4.3)	1(4.3)
	4학년 이상	8(53.3)	11(73.3)	9(60.0)	2(13.3)	3(20.0)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31(75.6)	15(36.6)	24(58.5)	8(19.5)	3(7.3)
	자연공학의학	27(79.4)	16(47.1)	4(11.8)	-	1(2.9)
	예체능	18(81.8)	14(63.6)	6(27.3)	1(4.5)	-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47(83.9)	20(35.7)	18(32.1)	7(12.5)	-
	비동거	29(70.7)	25(61.0)	16(39.0)	2(4.9)	4(9.8)
음주 빈도 (1년 평균)	주 한번 이상	24(70.6)	18(52.9)	11(32.4)	1(2.9)	3(8.8)
	한달에 한번	33(82.5)	20(50.0)	17(42.5)	4(10.0)	-
	2~3달에 한번	17(85.0)	7(35.0)	6(30.0)	3(15.0)	1(5.0)
	비음주	2(66.7)	-	-	1(33.3)	-
폭력예방교육 경험	연 1회 이상	15(68.2)	13(59.1)	9(40.9)	6(27.3)	-
	없음	61(81.3)	32(42.7)	25(33.3)	3(4.0)	4(5.3)
케이스 전체		76(78.4)	45(46.4)	34(35.1)	9(9.3)	4(4.1)

2) 목격 시기

대학생의 학교폭력 목격 시간의 경우 18:00~24:00시에 7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12:00~18:00(4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12:00~18:00에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교폭력 목격 시간(복수응답)

목격 시간		09:00~12:00	12:00~18:00	18:00~24:00	24:00~09:00
		N(%)	N(%)	N(%)	N(%)
성별	남	30(33.7)	43(48.3)	64(71.9)	23(25.8)
	여	19(42.2)	23(51.1)	30(47.8)	4(17.2)
대학 소재지	수도권	16(38.1)	22(52.4)	31(73.8)	15(35.7)
	비수도권	33(35.9)	44(47.8)	63(68.5)	12(13.0)
학년	1학년	18(47.4)	15(39.5)	23(60.5)	3(7.9)
	2학년	14(31.8)	26(59.1)	32(72.7)	10(22.7)
	3학년	11(31.4)	14(40.0)	25(71.4)	6(17.1)
	4학년 이상	6(35.3)	11(64.7)	14(82.4)	8(47.1)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20(33.9)	27(45.8)	40(67.8)	10(16.9)
	자연공학의학	17(34.0)	23(46.0)	38(76.0)	12(24.0)
	예체능	12(48.0)	16(64.0)	16(64.0)	5(20.0)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31(35.6)	41(47.1)	53(60.9)	8(9.2)
	비동거	18(38.3)	25(53.2)	41(87.2)	19(40.4)
음주 빈도 (1년 평균)	주 한번 이상	11(23.9)	23(50.0)	37(80.4)	15(32.6)
	한달에 한번	27(54.0)	31(62.0)	31(62.0)	5(10.0)
	2~3달에 한번	9(29.0)	10(32.3)	22(71.0)	5(16.1)
	비음주	2(28.6)	2(28.6)	4(57.1)	2(28.6)
폭력예방교육 경험	연 1회 이상	12(40.0)	15(50.0)	24(80.0)	8(26.7)
	없음	37(35.6)	51(49.0)	70(67.3)	17(18.3)
케이스 전체		49(36.6)	66(49.3)	94(70.1)	27(20.1)

대학생의 학교폭력 목격 요일의 경우 금요일이 6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목요일(39.8%), 월요일(3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와 동거 여부와 음주빈도에 따라 목요일 보다 토요일에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학교폭력 목격 요일(복수응답)

목격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N(%)	N(%)	N(%)	N(%)	N(%)	N(%)	N(%)
성별	남	27(30.3)	21(23.6)	23(25.8)	33(37.1)	58(65.2)	32(36.0)	12(13.5)
	여	15(34.1)	9(20.5)	16(36.4)	20(45.5)	25(56.8)	7(15.9)	4(9.1)
대학 소재지	수도권	13(31.0)	12(28.6)	14(33.3)	20(47.6)	28(66.7)	16(38.1)	8(19.0)
	비수도권	29(31.9)	18(19.8)	25(27.5)	33(36.3)	55(60.4)	23(25.3)	8(8.8)

목적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N(%)	N(%)	N(%)	N(%)	N(%)	N(%)	N(%)
학년	1학년	12(32.4)	6(16.2)	9(24.3)	13(35.1)	19(51.4)	11(29.7)	4(10.8)
	2학년	14(31.8)	15(34.1)	15(34.1)	21(47.7)	28(63.6)	14(31.8)	6(13.6)
	3학년	8(22.9)	2(5.7)	8(22.9)	9(25.7)	22(62.9)	8(22.9)	1(2.9)
	4학년 이상	8(47.1)	7(41.2)	7(41.2)	10(58.8)	14(82.4)	6(35.3)	5(29.4)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17(29.3)	15(25.9)	17(29.3)	26(44.8)	30(51.7)	19(32.8)	6(10.3)
	자연공학의학	16(32.0)	10(20.0)	9(18.0)	17(34.0)	40(80.0)	16(32.0)	7(14.0)
	예체능	9(36.0)	5(20.0)	13(52.0)	10(40.0)	13(52.0)	4(16.0)	3(12.0)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25(29.1)	16(18.6)	23(26.7)	31(36.0)	45(52.3)	14(16.3)	5(5.8)
	비동거	17(36.2)	14(29.8)	16(34.0)	22(46.8)	38(80.9)	25(53.2)	11(23.4)
음주 빈도 (1년 평균)	주 한번 이상	12(26.1)	9(19.6)	15(32.6)	17(37.0)	31(67.4)	17(37.0)	5(10.9)
	한달에 한번	23(46.0)	13(26.0)	18(36.0)	30(60.0)	27(54.0)	11(22.0)	8(16.0)
	2~3달에 한번	7(23.3)	7(23.3)	6(20.0)	5(16.7)	21(70.0)	9(30.0)	2(6.7)
	비음주	-	1(14.3)	-	1(14.3)	4(57.1)	2(28.6)	1(14.3)
폭력예방교육 경험	연 1회 이상	12(40.0)	9(30.0)	8(26.7)	14(46.7)	24(80.0)	11(36.7)	6(20.0)
	없음	30(29.1)	21(20.4)	21(30.1)	39(37.9)	59(57.3)	28(27.2)	10(9.7)
케이스 전체		42(31.6)	30(22.6)	39(29.3)	53(39.8)	83(62.4)	39(29.3)	16(12.0)

대학생의 학교폭력 목적 학기의 경우 방학이 아닌 학기 중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1학기 기간 동안 목적 비율이 83.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2학기의 경우 35.3%로 학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학교폭력 목적 학기(복수응답)

목적 학기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N(%)	N(%)	N(%)	N(%)
성별	남	2(2.3)	76(86.4)	9(10.2)	32(36.4)
	여	2(4.4)	35(77.8)	12(26.7)	15(33.3)
대학 소재지	수도권	4(9.8)	32(78.0)	6(14.6)	17(41.5)
	비수도권	-	79(85.9)	15(16.3)	30(32.6)
학년	1학년	-	32(84.2)	2(5.3)	11(28.9)
	2학년	1(2.3)	38(86.4)	7(15.9)	18(40.9)
	3학년	-	27(77.1)	8(22.9)	11(31.4)
	4학년 이상	3(18.8)	14(87.5)	4(25.0)	7(43.8)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2(3.4)	47(79.7)	8(13.6)	20(33.9)
	자연공학의학	1(2.0)	43(87.8)	10(20.4)	16(32.7)
	예체능	1(4.0)	21(84.0)	3(12.0)	11(44.0)

목적 학기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N(%)	N(%)	N(%)	N(%)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1(1.1)	73(83.9)	13(14.9)	24(27.6)
	비동거	3(6.5)	38(82.6)	8(17.4)	23(50.0)
음주 빈도 (1년 평균)	주 한번 이상	-	37(80.4)	10(21.7)	20(43.5)
	한달에 한번	2(4.0)	45(90.0)	6(12.0)	18(36.0)
	2~3달에 한번	2(6.7)	23(76.7)	5(16.7)	8(26.7)
	비음주	-	6(85.7)	-	1(14.3)
폭력예방교육 경험	연 1회 이상	3(10.3)	26(89.7)	7(24.1)	12(41.4)
	없음	1(1.0)	85(81.7)	14(13.5)	35(33.7)
케이스 전체		4(3.0)	111(83.5)	21(15.8)	47(35.3)

대학생의 학교폭력 목적 시점의 경우 시험전후가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종강(34.8%), 각종행사(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시험전후 시점 다음으로 종강 또는 각종행사 시 학교폭력 목적시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교폭력 목적 시점(복수응답)

목적 시점		개강	종강	시험전후	각종행사	그 외 학기중	방학
		N(%)	N(%)	N(%)	N(%)	N(%)	N(%)
성별	남	13(16.9)	26(33.8)	45(58.4)	18(23.4)	13(16.9)	16(20.8)
	여	2(5.7)	13(37.1)	16(45.7)	6(17.1)	6(17.1)	12(34.3)
대학 소재지	수도권	8(22.2)	4(11.1)	17(47.2)	13(36.1)	8(22.2)	6(16.7)
	비수도권	7(9.2)	35(46.1)	44(57.9)	11(14.5)	11(14.5)	22(28.9)
학년	1학년	7(21.2)	12(36.4)	18(54.5)	6(18.2)	3(9.1)	5(15.2)
	2학년	3(8.6)	12(34.3)	18(51.4)	8(22.9)	9(25.7)	11(31.4)
	3학년	2(7.4)	11(40.7)	18(66.7)	3(11.1)	3(11.1)	7(25.9)
	4학년 이상	3(17.6)	4(23.5)	7(41.2)	7(41.2)	4(23.5)	5(29.4)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5(10.4)	14(29.2)	20(41.7)	10(20.8)	11(22.9)	12(25.0)
	자연공학의학	5(10.9)	20(43.5)	29(63.0)	8(17.4)	5(10.9)	14(30.4)
	예체능	5(27.8)	5(27.8)	12(66.7)	6(33.3)	3(16.7)	2(11.1)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8(11.3)	27(38.0)	34(47.9)	9(12.7)	10(14.1)	21(29.6)
	비동거	7(17.1)	12(29.3)	27(65.9)	15(36.6)	9(22.0)	7(17.1)
음주 빈도 (1년 평균)	주 한번 이상	3(8.1)	14(37.8)	22(59.5)	8(21.6)	7(18.9)	9(24.3)
	한달에 한번	8(19.5)	10(24.4)	20(48.8)	12(29.3)	10(24.4)	9(22.0)
	2~3달에 한번	4(14.3)	14(50.0)	14(50.0)	4(14.3)	2(7.1)	8(28.6)
	비음주	-	1(16.7)	5(83.3)	-	-	2(33.3)
폭력예방교육 경험	연 1회 이상	3(10.7)	10(35.7)	16(57.1)	10(35.7)	4(14.3)	8(28.6)
	없음	12(14.3)	29(34.5)	45(53.6)	14(16.7)	15(17.9)	20(23.8)
케이스 전체		15(13.4)	39(34.8)	61(54.5)	24(21.4)	19(17.0)	28(25.0)

3) 폭력 당사자

대학생 학교폭력 대상에 대한 목격자 지인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피·가해자 모두 지인이라는 응답이 86.3%로 매우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비교에서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학교폭력은 피해, 가해, 목격 모두 지인 간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학교폭력 목격 폭력 당사자 인지

피·가해자 인지		피·가해자 인지	피해자만 인지	가해자만 인지	모두 알지못함
		N(%)	N(%)	N(%)	N(%)
성별	남	72(83.7)	6(7.0)	6(7.0)	4(4.7)
	여	35(83.3)	41(2.4)	4(9.5)	3(7.1)
대학 소재지	수도권	40(97.6)	1(2.4)	1(2.4)	1(2.4)
	비수도권	67(77.0)	6(6.9)	9(10.3)	6(6.9)
학년	1학년	30(88.2)	1(2.9)	2(5.9)	1(2.9)
	2학년	36(83.7)	2(4.7)	3(7.0)	2(4.7)
	3학년	27(79.4)	2(5.9)	3(8.8)	2(5.9)
	4학년 이상	14(82.4)	2(11.8)	2(11.8)	2(5.9)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45(80.4)	2(3.6)	5(8.9)	5(8.9)
	자연공학의학	41(85.4)	3(6.3)	5(10.4)	1(2.1)
	예체능	21(87.5)	2(8.3)	-	1(4.2)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65(80.2)	4(4.9)	9(11.1)	3(3.7)
	비동거	42(89.4)	3(6.4)	1(2.1)	4(8.5)
음주 빈도 (1년 평균)	주 한번 이상	37(82.2)	3(6.7)	1(2.2)	5(11.1)
	한달에 한번	45(93.8)	-	3(6.3)	-
	2~3달에 한번	21(75.0)	3(10.7)	4(14.3)	2(7.1)
	비음주	4(57.1)	1(14.3)	2(28.6)	-
폭력예방교육 경험	연 1회 이상	23(76.7)	2(6.7)	3(10.0)	4(13.3)
	없음	84(85.7)	5(5.1)	7(7.1)	3(3.1)
케이스 전체		107(83.6)	7(5.5)	10(7.8)	7(5.5)

4) 폭력 목격 신고

대학생 학교폭력 목격 후 신고 여부에 대한 응답의 경우 신고하지 않음의 비율이 66.3%로 나타났다. 경찰 또는 학교에 신고한 경우(27.9%)에 비해 약 2.3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학교폭력 목격 후에 방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표 12
학교폭력 목격 후 신고 여부

신고 여부		신고하지 않음	경찰 또는 학교에 신고	직접 개입
		N(%)	N(%)	N(%)
성별	남	64(71.9)	21(23.6)	12(13.5)
	여	25(55.6)	17(37.8)	5(11.1)
대학 소재지	수도권	32(76.2)	7(16.7)	10(23.8)
	비수도권	57(62.0)	31(33.7)	7(7.6)
학년	1학년	28(73.7)	9(23.7)	7(18.4)
	2학년	31(70.5)	12(27.3)	3(6.8)
	3학년	20(57.1)	13(37.1)	3(8.6)
	4학년 이상	10(58.8)	4(23.5)	4(23.5)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37(66.1)	15(25.4)	9(15.3)
	자연공학의학	30(60.0)	16(32.0)	7(14.0)
	예체능	20(80.0)	7(28.0)	1(4.0)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58(66.7)	25(28.7)	8(9.2)
	비동거	31(66.0)	13(27.7)	9(19.1)
음주 빈도 (1년 평균)	주 한번 이상	31(67.4)	13(28.3)	5(10.9)
	한달에 한번	39(78.0)	11(22.0)	4(8.0)
	2~3달에 한번	16(51.6)	11(35.5)	7(22.6)
	비음주	3(42.9)	3(42.9)	1(14.3)
폭력예방교육 경험	연 1회 이상	20(66.7)	9(30.0)	6(20.0)
	없음	69(66.3)	29(27.9)	11(10.6)
케이스 전체		89(66.3)	29(27.9)	11(10.6)

대학생 학교폭력을 향후 목격 시 대처행동에 대한 응답으로 경찰에 신고(61.5%), 학교에 신고(30.4%)로 신고의사에 대한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교폭력 현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응답도 20%, 지인에게 알림은 15.6%였다. 한편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5.9%로 나타났다.

표 13
학교폭력 목격 시 향후 대처 행동

향후 대처 행동		학교에 신고	경찰에 신고	직접 개입	지인에게 알림	반응하지 않음
		N(%)	N(%)	N(%)	N(%)	N(%)
성별	남	29(32.6)	53(59.6)	22(24.7)	10(11.2)	4(4.5)
	여	12(26.1)	30(65.2)	5(10.9)	11(23.9)	4(8.9)
대학 소재지	수도권	20(46.5)	24(55.8)	10(23.3)	14(32.6)	3(7.0)
	비수도권	21(22.8)	59(64.1)	17(18.5)	7(7.6)	5(5.4)
학년	1학년	13(34.2)	21(55.3)	8(21.1)	7(18.4)	3(7.9)
	2학년	15(34.1)	29(65.9)	6(13.6)	2(4.5)	1(2.3)
	3학년	9(25.7)	24(68.6)	6(17.1)	4(11.4)	3(8.6)
	4학년 이상	4(22.2)	9(50.0)	7(38.9)	8(44.4)	1(5.6)

향후 대처 행동		학교에 신고	경찰에 신고	직접 개입	지인에 알림	반응하지 않음
		N(%)	N(%)	N(%)	N(%)	N(%)
전공계열	인문사회교육	19(31.7)	35(58.3)	17(28.3)	14(23.3)	2(3.3)
	자연공학의학	9(18.0)	32(64.0)	7(14.0)	4(8.0)	3(6.0)
	예체능	13(52.0)	16(64.0)	3(12.0)	3(12.0)	3(12.0)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24(27.6)	56(64.4)	15(17.2)	11(12.6)	5(5.7)
	비동거	17(35.4)	27(56.3)	12(25.0)	10(20.8)	3(6.3)
음주 빈도 (1년 평균)	주 한번 이상	16(34.0)	25(53.2)	9(19.1)	6(12.8)	6(12.8)
	한달에 한번	16(32.0)	31(62.0)	9(18.0)	10(20.0)	1(2.0)
	2~3달에 한번	7(22.6)	24(77.4)	7(22.6)	4(12.9)	1(3.2)
	비음주	2(28.6)	3(42.9)	2(28.6)	1(14.3)	-
폭력예방교육 경험	연 1회 이상	7(22.6)	17(54.8)	9(29.0)	8(25.8)	4(12.9)
	없음	34(32.7)	66(63.5)	18(17.3)	13(12.5)	4(3.8)
케이스 전체		41(30.4)	83(61.5)	27(20.0)	21(15.6)	8(5.9)

2. 대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대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는 전체 연구대상 467명 중 8.6%인 40명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의 표집이 적은 숫자이므로 배경변인별 분석은 실시하지 않고, 피해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 전체의 응답결과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피해상황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 유형의 경우 언어폭력이 전체 유형 중 48.4%로 절반가까운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따돌림(14.1%), 강제 심부름(10.9%), 기타(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지역감정, 갑질, 스토킹, 혐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언어폭력이 79.5%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언어폭력에 대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교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구분	신체폭력	언어폭력	강제심부름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추행·성폭력	기타	총계
피해유형	N	2	31	7	9	5	3	7
	%	3.1	48.4	10.9	14.1	7.8	4.7	10.9
케이스전체	%	5.1	79.5	17.9	23.1	12.8	7.7	17.9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 원인의 경우 관행(34.4%)과 군중심리 및 과시(32.8%)가 높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은 관행과 군중심리 및 과시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교폭력 피해 원인(복수응답)

구분		이유 없음	관행	군중심리 및 과시	기타	총계
피해원인	N	14	21	20	6	61
	%	23.0	34.4	32.8	9.8	100.0
케이스전체	%	35.0	52.5	50.0	15.0	152.5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경우 강의실이 전체 응답의 51.6%의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강의실 외 교내시설이 32.3%로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 장소가 대학 교내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강의실이 8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강의실 외 교내시설 또한 절반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표 16
학교폭력 피해 장소(복수응답)

구분		강의실	강의실 외 교내시설	교내 건물밖	온라인	총계
피해장소	N	32	20	6	4	62
	%	51.6	32.3	9.7	6.5	100.0
케이스전체	%	80.0	50.0	15.0	10.0	155.0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 당시 주변인에 대한 응답결과 친구나 동기가 있었다는 응답이 45.9%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선후배 등을 포함하는 지인이 25.7%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당시 피해자 주변에 친구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85%).

표 17
학교폭력 피해 당시 주변인(복수응답)

구분		친구·동기	교수·강사	지인	단독	총계
주변인	N	34	10	19	11	74
	%	45.9	13.5	25.7	14.9	100.0
케이스전체	%	85.0	25.0	47.5	27.5	184.5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은 대인기피증이 37.5% 가장 높았으며 휴학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 수면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실질환도 16.7%로 나타났으며,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도 12.5%로 나타났다.

표 18
학교폭력 피해 정도(복수응답)

구분		대인기피증	기타 정실질환	휴학 및 고려	상담치료	총계
피해정도	N	9	4	8	3	24
	%	37.5	16.7	33.3	12.5	100.0
케이스전체	%	47.4	21.1	42.1	15.8	126.3

2) 피해시기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 시간의 경우 12~18시의 비율이 35.6%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09~12시(28.8%), 18~24시(24.7%)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새벽시간을 제외 하고는 학교폭력의 발생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학교폭력 피해 시간(복수응답)

구분		09:00~12:00	12:00~18:00	18:00~24:00	24:00~09:00	총계
피해시간	N	21	26	18	8	73
	%	28.8	35.6	24.7	11.0	100.0
케이스전체	%	52.5	65.0	45.0	20.0	182.5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 요일의 경우 주말보다는 평일이 전반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선 피해시간과 유사하게 학교폭력의 발생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학교폭력 피해 요일(복수응답)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총계
피해요일	N	14	13	17	19	19	8	4	94
	%	14.9	13.8	18.1	20.2	20.2	8.5	4.3	100.0
케이스전체	%	35.9	33.3	43.6	48.7	48.7	20.5	10.3	241.0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기의 경우 방학 보다 학기 중에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중 87%가 1학기 기간동안 피해 경험을 했으며 2학기에도 35%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21
학교폭력 피해 학기(복수응답)

구분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총계
피해학기	N	1	34	6	14	55
	%	1.8	61.8	10.9	25.5	100.0
케이스전체	%	2.6	87.2	15.4	35.9	141.0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 시점의 경우 개강시점이 3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각종행사(28.3%), 시험전후(15.1%)로 나타났다.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개강(67.7%)과 각종행사(48.4%) 시점에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학교폭력 피해 시점(복수응답)

구분		개강	종강	시험전후	각종행사	그 외 학기중	방학	총계
피해시점	N	21	4	8	15	3	2	53
	%	39.6	7.5	15.1	28.3	5.7	3.8	100.0
케이스전체	%	67.7	12.9	25.8	48.4	9.7	6.5	171.0

3) 폭력 당사자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5%로였으며, 각 대상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 및 학과 선배가 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동기(36.8%)와 교수·강사(23.5%)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23
학교폭력 가해자와의 관계(복수응답)

구분		친구·동기	교수·강사	선배	총계
가해자	N	14	12	25	51
	%	27.5	23.5	49.0	100.0
케이스전체	%	36.8	31.6	65.8	134.2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 당시 가해자의 폭력은 단독(7명, 18.4%) 보다는 2인 이상(31명, 81.6%)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신고

대학생 학교폭력 피해자중 피해 이후 신고 여부 97.5%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미신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관행·무시 등의 대수롭지 않아서가 26.4%, 보복의 두려움이 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학교폭력 피해 미신고 사유(복수응답)

구분		피해가 적음	대수롭지 않음	보복의 두려움	학교와 경찰 불신	개인적으로 해결	총계
미신고 사유	N	17	14	12	3	7	53
	%	32.1	26.4	22.6	5.7	13.2	100.0
케이스전체	%	48.6	40.0	34.3	8.6	20.0	151.4

대학생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바라는 처벌로는 피해자가 겪었던 동일한 학교폭력을 당하기를 바란다는 역지사지에 대한 응답이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손해배상 등과 같은 법적 처벌이 28.6%, 용서하고 싶다가 14.3%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25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구분		역지사지	법적 처벌	용서	총계
가해자 처벌	N	16	8	4	28
	%	57.1	28.6	14.3	100.0
케이스전체	%	61.5	30.8	15.4	107.7

3. 대학생의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에 대한 질적 분석

연구참여자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핵심문제점과 결과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경험유무에 따른 차이점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한 현실적 제도안착과 실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처벌수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사태로 인해 다수의 수업이 비대면강의로 진행되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폭력은 줄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특정다수를 향한 혐오발언과 사이버폭력은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대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과 개선방안을 위한 질적분석은 표 28에 정리하였다.

표 26
대학생의 학교폭력 핵심 문제점에 대한 예방 및 개선방안

차원	핵심 문제점	학교폭력예방 및 개선방안
교육 차원	해도 안 해도 그만인 교육	초등부터 빈틈없는 체계적 채움교육 필수교양과목 선정
	틀어놓고 클릭만 기계적으로 하는 교육	다양한 실천교육: 토론, 게임, 메타버스, 캠페인, 지역사회 연계활동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와 강화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뻔한 내용	현실반영된 실제사례를 통한 교육내용 정의, 가치, 상식 등 포괄적인 인간관계교육
사회 인식 차원	미래인재는 성적과 취업에 함몰	폭력이 없는 세상을 바꾸는 대학기조 기업연계를 통한 취업제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부적응	대학생 지원프로그램 개설과 홍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안일한 법적대처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 가해자 처벌강화
권력 구조 차원	집단의 비합리적 사고	폐쇄적인 학교문화와 학과풍토 개방적개선 긍정적인 리더십 능력 향상
	힘의 과시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 범국민적인 공동체 의식개선 교육
개인 차원	문제의식 부족	반성적 사고와 책임성 강화 아젠다 형성
	학교(가정)폭력 경험	트라우마센터 운영 부모교육 필수화

1) 교육차원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에 비하여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 교육을 들었던 경험이 한번 정도에 그쳤고, 대학에서도 필수이수과정이 아니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관련자(가해자-피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은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교육경험은 매우 부족하였다. 교육을 듣는 경우에도 형식적이고 빈한 내용 전달이라 실제로 폭력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초등부터 차근차근 빈틈없이 단계적으로 채워나가는 교육이 필요하고, 실천적 ‘학폭예방콘테스트’, ‘영상 만들기’, ‘도보구호 캠페인’ 등의 방법과 실제사례를 통해 다양한 접근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영) 초등부터 차곡차곡 채워주는 교육으로 이수증이나 자격증을 꼭 이수해야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대학생들도 학점이수나 졸업이나 취업에 가산점이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 할 듯

성진) 대학은 심폐소생술처럼 필수교양과목으로 좀 강제적으로 개설하고 해야지

태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토론이나 게임 등 밸런스가치교육도 하고 쿠폰도 주면서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있어야... 지역사회나 (초중등)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캠페인이나 홍보도 하고

정훈) 실제로 (학교폭력)터지면 솔직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나 당황스럽기 마련이기에 실제사례를 들어서...

지수) 폭력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니 인간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진짜 인간화 형성에 초점을 두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

참여자들은 교육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천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왜냐하면 폭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 폭력이며,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고통에 관하여 직간접인 실제적 경험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생 스스로도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의식 부족으로 교육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사회인식차원

대학만 가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귀에 딱지 앓을 만큼 듣고 성장한 이들은 기대와는 반대로 여전히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취업을 위한 각종 스펙 쌓는 경쟁 현실은 더 가혹했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사태로 인한 혼란은 학교적응을 어렵게 만들었고

신입생과 복학생은 더욱 그러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경험자는 넓은 학교에서 어디로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덩그러니 울고만 있었던 자신을 이야기 하였다. 이후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무리되었고, 다시 폭력을 당해도 포기해버리는 상황에 놓이며 휴학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성진) 경쟁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아무래도 취업이 최종 목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 학폭 가해자에게 취업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가장 무섭지 않을까...

가영) 폭력은 대학생, 군대, 직장, 가정 끝없는 악순환으로 대학이 끊을 수 있는 기초를 세워 세상의 변화에 앞장서야 하며, 학교와 교수의 역량강화로 학생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민우) 도움받을 곳이 있어도 모르면 무명무실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폭력)발생하더라도 학교자체도 어떤 메뉴얼이 없어서... 112처럼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와 학교 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수) 휴학을 고민해야 하는 쪽은 가해자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부당하게 생각 하고... 중고딩때는 학반이나 전학이라도... 대학은 퇴학은 택도 없고 휴학권고도 없이 쪽 봐야하는

참여자들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누군가보다 우위를 점해야 하기에 공격성과 방어적인 행동이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폭력이 없는 세상을 바꾸는 대학교라는 기초를 가지고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폭력가해경험자는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무명무실'은 대학기관의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이 학교폭력을 경험함에도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자신을 도와줄 곳이 없고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생은 초중고등처럼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교수진을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여 도움요청이 힘들고,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역량부족을 들었다. 대학생이 성인이라도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onestop시스템을 구축하여 강력한 대처와 교수-학생의 개방적 관계형성 및 학교폭력에 관한 교수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3) 권력구조차원

참여자들은 중학생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으면 무섭듯이 대학생들도 집단 의식에 빠져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학교, 우리학과 등 우리라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학교와 학과의 관례와 폐쇄성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핵심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적 배척, 인종차별 등 혐오발언이 심화되어 지방출신의 참여자는 사투리를 사용하면 눈치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권력구조 상위에 있는 교수진과 선배 등이 권력의 힘을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로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정훈) 그들만의 리그라고 폐쇄적인 공간은 뭔가 숨기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막 휘두르는... 투명하게 학교문화와 학과를 개방해야 보는 눈이 많아지고

민우) 범죄와 욕설, 입시, 채용비리가 정치세계처럼 권력남용은 끝이 좋지 않다는 긍정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평등 수평적 리더십처럼

성진) 선배든 교수든 후배든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고 능력주의가 우선되고... 그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태우) 힘을 제대로 써야하는 범국민적인 공동체 의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학생들이 학교나 학과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학연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교수진이나 선배가 권력을 휘둘러도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달하였다. 대학생들은 학연과 지연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도 재상산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대학생들이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고, 관례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결과보다 폭력발생은 비율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학교폭력 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통된 의견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결과를 반증하는 것이다. 대학이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고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과 힘의 과시로 인한 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의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개인차원

참여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끔찍하고 지능화된 학교폭력이나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에 무감각해졌다는 반성적 이야기를 하였다. 학교폭력에서 방관자는 또 다른 가해자이기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학교와 가정폭력 등이 사회적으

로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경험이 있던 피해자는 복수심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공격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으로 증폭되기 때문에 폭력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치료하도록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기부터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영) 어찌면 우린 모두 방관자로 학폭가해자라해도 과언이 아니지... 너무 무더진

태우) 반성하고 대학생커뮤니티를 통해 '제로폭력' 아젠다를 형성하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이슈몰이를 하면 강력한 힘이 작용하지 않겠어

민우) 가해자를 복수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카타르시스를...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법적강화와 피해자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관리

지수) 폭력은 시작이 되지 않도록 결혼할 때 부모교육 필수자만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하면 너무 과한가...

이처럼 폭력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그 빈틈을 타고 터지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폭력의 시발점이 시작되지 않도록 부모교육을 필수화시키고자하는 것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참여자들은 대학입시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주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이나 폭력에도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탐색하고 힘을 모아 '아젠다'를 형성하여 '제로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대책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은 연구대상 467명 중 목격 28.9%(135명), 피해 8.6%(4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중고 학교폭력 가해 0.6%, 피해 1.7%, 목격 3.8%(교육부, 2022)경험과 비교했을 때, 대학생이 되어도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대학생의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학교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목격유형은 언어폭력 68.9%, 성추행·성폭력 32.6%, 신체폭력 17.0%, 강제심부름 16.3%,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 11.9%, 기타 8.1% 순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일 경우 언어폭력 다음에 강제심부름이 26.3%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경험은 언어폭력 48.4%, 집단따돌림 14.1%, 강제심부름 10.9%, 기타 10.9%로 지역감정, 갑질, 스토킹, 혐오발언 등이 포함되어 나타났다. 교육부(2022)에 의하면, 초중고 학교폭력유형은 언어폭력 41.8%, 신체폭력 14.6%, 집단따돌림 13.3%, 사이버폭력 9.6%, 스토킹 5.7%, 금품갈취 5.4%, 강요 5.3%, 성폭력 4.3% 순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대학생의 언어폭력은 상대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성추행과 성폭력의 높은 결과는 이성교제와 데이트폭력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경험보다 목격경험에서 높은 결과는 성적수치심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학년에서 강제심부름이 높은 결과는 대학의 선후배간 위계질서가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친한 동료 및 선후배,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이지연, 오경자, 2007) 대학생의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등교육법」 제19조3에 따라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초중등의 학교폭력 양상과 다르게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성추행·성폭력 비율이 높으므로, 인권센터 운영 의무화는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학년의 경우 언어폭력 다음으로 강제심부름이 높은 만큼, 선·후배 간 바람직한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제심부름 등과 같은 폭력으로 인하여 신입생이 대학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인권센터의 기능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 성희롱·성폭

력 예방 및 사후처리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 학교폭력 전체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 인권침해행위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비춰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사태와 정보통신기술로 인하여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29.2%, 성인 15.7%로 증가(방송통신위원회, 2022)하는 것이 사회전반적인 현상이지만 대학생의 사이버폭력이 낮은 이유는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 일상적'이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타의견으로 지역적 감정, 갑질, 스토킹, 혐오발언 또한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사투리 쓰기 눈치보여서'의 처럼 표면적으로 확연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며, 4년 연속 혐오표현경험이 56.5%로 증가하는 추세(국가인권위원회, 2022)와도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이는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갈등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 간의 배려와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와 제도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둘째, 대학생의 학교폭력 발생장소는 강의실과 교내에서의 목격(78.4%)과 피해(51.6%)경험 모두 절반 이상의 결과로 도출되었다. 피해요일도 음주빈도에 따라 금요일이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평일이 주말보다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는 초중고 학교폭력 피해장소도 학교 안(61.8%)이 가장 높았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유형도 같은 학교, 같은 반(45.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2022)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음주가 폭력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비해, 코로나사태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황변화, 즉 음식점 인원제한, 비대면 수업의 연장, 학교행사(축제)정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학교외의 장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연결선상에서 학교폭력목격 경우 피·가해자 모두 지인(86.3%)이며, 폭력가해자도 선배(49%), 친구·동기(27.5%), 교수·강사(23.5%)라는 점은 학교폭력 대부분 학교 내에서 친분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 위계적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갈등이 야기되거나,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는 도구로 강압적인 힘의 작용으로 폭력이 행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가혹한 경쟁사회'가 학교폭력의 문제로 지나친 경쟁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황폐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Kohn, 1986)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 갈등 조정능력과 자기역량 강화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쇄시키는 기능적 역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눈여겨 볼 것은 대학의 선후배 관계가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관계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계속 재생산해 내고 있다(나윤경, 권인숙, 2010)는 오래된 관행이 학교폭력 피해원인의 관행(34.4%)과 군중심리 및 과시(32.8%)로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선배에 의한

집합과 폭언, 신체적 폭력, 왕따 등 그 양상이 청소년기 학교폭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손강숙, 정소미, 2019).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 중 87%가 1학기 동안 경험하는 것은 학교 폐쇄성의 매너리즘이 뒷받침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의 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은 집단구성원간의 연결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방식의 사고와 행동을 규칙에 따라 습관적으로 행위 하여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요, 강압 등 폭력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은 조화로운 화음으로 건강한 집단의 조화를 지킬 수 있는 구성원간의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화와 풍토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대학생은 학교폭력 목격자 66.3%와 피해경험자 97.5%가 학교폭력 발생 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90.8%의 신고율(교육부, 2022)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이다. 대학생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주위의 문제에 무관심'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도덕적 가치의 결여와 신고를 해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경험의 산물이 복합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가 두드러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이 현대의 대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의 원인이 되어 집단주의적 가치가 약화되고(Markus & Kitayama, 1994), 대학생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과 사회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오찬호, 2015)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교폭력 현장에서 주변인의 역할은 고정적이지 않고 특정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바뀌기도 한다(Barhight, Hubbard, & Hyde, 2013). 이에 대학생의 학교폭력은 초중등 학교폭력 현장에서 주변인이 대부분 방임자로서의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더 넓은 학교에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랐던 참여자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대학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담임교사의 지원을 받는 초·중·고등학생들과는 달리 성인초기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은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손강숙, 정소미, 2019)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고를 제고하기 위한 목격자의 신원보호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보호책을 강화(홍태경, 2019)하여, 신고율을 높이고 긴급하게 대처하는 것은 연속적이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대학생 개개인은 사회적 문제에 비판적이고 반성적 사고와 책임성을 주도적으로 강화하고, 아젠다 형성으로 폭력을 단절시킬 수 있는 교량역할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대학생에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사건처리와 무관용 원칙의 가해자 처벌강화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학생의 73.7%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개선방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교육의 중요성에서 찾았다. 질적연구로 도출된 교육, 사회인식, 권력구조, 개인차원이 단편적이고 배타적으로 구분되기보다 서로 상보적, 유기적으로 교차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범위를 아우르는 중요한 수단과 기능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육경험은 교육을 통해 도달되어야 할 최고의 상태인 강한 도덕적 품성(Herbert, 1964: 정기섭, 2002에서 재인용:15)을 상쇄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학은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한 고등교육을(박한규, 2016)구현시키기 위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교육부(2022)는 지역 내 관계기관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이론과 실천의 균형적인 과정과 다양한 실제사례와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폭력에 대한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폭력 전반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으로의 확대 및 개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한계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 과제를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표집인원과 표집방식을 계획대로 단순비례배분방식으로 표집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통계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비교해 보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질적 연구참여자의 보고에 따르면 피해경험유형으로 사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문제도 상당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설문문항을 설계하여 대학생 학교폭력 문제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은 (2016). 학창시절 경험을 통해 대학생이 인식한 학교폭력 극복방법과 시사점. **한국사회복지**, 35, 113-134.
- 교육부 (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보도자료, 교육부.
- 국가인권위원회 (2022).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제 129001 호.
- 김동기 (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6), 135-159.
- 김맹진 (2009). 개인의 가치가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음주자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4(4), 376-384.
- 김재엽, 이효정, 송아영 (2007).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7, 27-52.
- 나운경, 권인숙 (2010). 신자유주의적 주체, 한국 대학생들의 선후배 관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 **평생교육학연구**, 16(2), 117-144.
- 문지혜, 정혜정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3(4), 627-653. doi:10.21479/kaft.2015.23.4.627
- 문화방송 (2021.3.15.). “[뉴스타치] ‘학폭’ 대응에서 외면받는 대학생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18603_34943.html에서 2021년 3월 15일 인출.
- 동아일보 (2018.3.27.). “부산 데이트 폭력, 경악…데이트폭력 정의·규정 현행 법령 없다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327/89316592/2>에서 2018년 3월 27일 인출.
- 박선숙 (2016). 학교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 **교정복지연구**, 45, 41-72.
- 박한규 (2016). 21세기 새로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연대. **사회재건연구**, 31(2), 35-62.
- 방송통신위원회 (2022).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도자료, 방통위.
-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2), 21-39.
- 손강숙, 정소미 (2019). 대학생 학교폭력 주변인의 인식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7(2), 115-126.
- 송지영 (2008). **대학생들의 음주관련 인식, 음주실태 및 건강관리습관의 관련성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광식 (2014). 대학생들의 음주 및 주취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한부모가정학**, 7(1), 43-72.
- 여성부 (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2002-22). 서울: 여성부.

- 연합뉴스 (2018.4.5.). “게임 조용히 하란 말에 화나” 대학교 기숙사서 칼부림(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5015351064?section=search>에서 2018년 4월 5일 인출.
- 연합뉴스 (2018.5.29.). “교수가 대학생에 ‘얼차려’…광주인권위 인권침해 사례 공개.” <https://www.yna.co.kr/view/AKR20180529109600054?section=search>에서 2018년 5월 29일 인출.
- 오찬호 (2015).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다. **문화과학**, 82, 65-85.
- 이성식, 전신현 (2015).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 접속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6(3), 5-30.
- 이응택 (2016).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과 심리·사회적 적응**.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 오경자 (2007).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숙 (2016).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 감수성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한 (2019).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자기표상 변화과정 탐구**. 순천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기섭 (2002). **교육현실과 교육학: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탐구**. 서울: 문음사.
- 조무용, 김정인 (2016). 대학생들의 스토킹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지각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3), 341-364.
- 조성기, 장승옥, 윤희미, 이해경, 최현숙, 제갈정 (2001). **대학생의 음주실태**(연구보고서 2001-3). 서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주간동아 (2017.3.13.). “대나무숲’에 드러난 대학가 젊은 끈대들: 술자리 강요에 선배 선물비 걷기는 기본, 단체기합에 성희롱까지.” <https://weekly.donga.com/3/all/11/870526/1>에서 2017년 3월 13일 인출.
- 최귀덕 (2008). 전문대학생의 음주행태 및 음주문화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논문집**, 9(1), 57-71.
- 최인섭, 박형민, 이순래, 노성호, 조은경, 박순진, 박정선, 박철현 (2003).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진단과 처방**(연구보고서 2003-35).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국가통계164003.
- 홍태경 (2019).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 학회보**, 18(2), 115-145.
- 「고등교육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Barhight, L. R., Hubbard, J. A., & Hyde, C. T. (2013). Children's physiological and emotional reactions to witnessing bullying predict bystander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84*(1), 375-390. doi:10.1111/j.1467-8624.2012.01839.x
- Kohn, A. (1986). *No contest: The case against compet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이영노 역(2009). *경쟁에 반대한다*. 서울: 산문.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68-579. doi:10.1177/0146167294205013
- Schnurr, M. P., & Lohman, B. J. (2008). The impact of collective efficacy on risks for adolescents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4), 518-535. doi:10.1007/s10964-013-9909-5
- Ulman, S. E., Karabatsos, G., & Koss, M. P. (1999). Alcohol and sexual assault in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6), 603-625. doi:10.1177/088626099014006003
- Wemer, O., & Schoepfle, G. M.(1987). *Systematic fieldwork*.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ABSTRACT

A survey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and prevention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Ji, Yeonjeong* · Moon Myunghyun** · Park, Jiho*** · Kim, Byoung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prepare basic data for discussing prevention measures. This was based on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and was done with the aim of reducing levels of school violence. For this purpose, a total of 467 responses were analyzed by distributing online questionnaires to college students attending 40-year universities nationwide over a total of 7 months from July 2021 to March 2022. Based on the quantitative research material which was gathered and analyzed, qualitative data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ix college students. Secondary data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and the following finding emerged.

First, among the 467 subjects studied, it was found that 28.9% of college students had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nd 8.6% had experienced some degree of damage as a result. Second, as measures which could be used to prevent or reduce school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levels, social awareness levels, power structure level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ll had some part to play.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were presented. Given the lack of research on school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this study has important significance as an initial exploratory study into this little studied phenomenon.

Key Words: College Students, School Violence, Survey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Focus Group interview, Prevention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School Education/Researcher, jiyj92@hanmail.net

**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Future Education/Research Professor, mmhp@naver.com

***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Sport Coaching/Student, wlgh0994@khu.ac.kr

****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Professor, kimbj@yu.ac.kr